

국립발레단, 국회 나들이

조윤선의원 초청 '해설이 있는 발레-지젤 갈라 공연'

김무성·정두언·최종원 의원 등 600여명 관람

최태지 단장 "광주·전남에서도 '찾아가는 발레' 진행"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수많은 심포지엄과 강연회, 토론회의 전용장이었던 이곳이 로맨틱한 발레의 환상적인 무대로 변신했다.

다름 아닌 국립발레단(단장 최태지)의 '해설이 있는 발레-지젤갈라 공연'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발레공연이 국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화려한 발레의 이면에는 좁은 국내 무대와 열악한 교육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발레에 재능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발레를 배워 세계적 무용수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국립발레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레공연을 국회에서)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립발레단의 특별한 나들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말해주듯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 전제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최종원 민주당의원, 일반 관객 등 600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국회 어린이집의 아이들 100여 명이 참석해 난생 처음 발레를 접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해설이 곁들여진 '진절할' 무대라는 점이다. 이날 해설자로 나선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를 출간한 오페라 컬럼니스트답게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발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1~2막으로 나뉘어 공연된 '지젤'은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난 2월 국립발레단의 2011년 첫 정기공연작이었던 이 작품은 창단 49년만에 최초로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정기공연과 달리 이날 무대는 관객들의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하이라이트만을 약 50분으로 압축해 선보였다.

비록 공연시간은 짧았지만 꼭 관객석에 화답하듯 무용수들의 집중력은 그 어떤 무대보다 돋보였다. 섬세한 춤과 드라마틱한 연기는 낭만주의 분위기를 한껏 살린 무대와

의상,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1막은 중세 라인강가의 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지젤은 병약하지만 발랄한 평민 처녀로 자신의 신분을 농민으로 속인 귀족 알브레히트와 사랑하는 사이. 평소 지젤을 사모하던 사냥꾼 힐라리온은 알브레히트가 귀족임을 밝혀내고 알브레히트와 공주 바틸다가 약혼한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 비탄에 잠긴 지젤은 이성을 잃고 서서히 죽는다.

2막은 지젤의 무덤을 찾아와다가 율리(남자의 배신 때문에 죽은 처녀들의 영혼)들의 포로가 된 알브레히트가 지젤의 사랑으로 목숨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로맨틱 댄스(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종 모양의 치마)를 입은 율리들의 몽환적인 군무장면은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선 광주출신 발레리노 김희현(25)씨가 남주자인공 알브레히트 역을 맡아 무대를 더욱 빛냈다. 아름다운 하체를 이용한 파워풀하면서도 정교한 춤동작, 수려한 마스크에서 우러나는 섬세한 표정 연기는 관객들의 '폭풍 브라운'을 이끌어냈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지젤 갈라 공연'. 남주자인공 알브레히트역을 맡은 광주출신 발레리노 김희현의 파워풀한 동작이 인상적이다. /연합뉴스

최태지 단장은 "국립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는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발레에 대한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발레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광주·전남지역에도 '찾아가는 발레'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박진현 선임기자 jhpark@

다양한 장르의 춤 한자리에

광주무용협회, 내일 '호·영남 춤 페스티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다양한 장르의 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제16회 호·영남 춤 페스티벌이 2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조선대 김미숙 교수가 이끄는 김미숙 뿌리 한국무용단은 창작 무용 '길'을 무대에 올린다. 황소희씨가 안무한 '길'은 어딘가로 끌려간 이이진 길을 소재로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무대에서 활동하는 신정희 발레단은 신정희씨의 안무로 'The Game'을

선보인다.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경기 장면과 치어리더들의 응원 모습을 창작 발레로 재미있게 만든 작품이다. 광주시립무용단은 4월 정기공연 작품인 '실비아'의 일부분을 미리 선보인다. 단장 김유미씨가 재민무한 작품으로 목동 아민타와 요정 실비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의 'butterfly effect'(안무 김미선)는 나, 너, 우리 삶의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자유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월봉서원 프로그램 풍성

'21세기 선비교실' 시작으로 다양한 서원체험

조선 중기 대표적인 학자인 고봉기대대 선생의 숨겨진 스토리는 월봉서원과 교육문화공동체 '결'(상임위원 민문식)이 올해에도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8년 시작된 '광주 월봉서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은 4년 연속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21세기 선비교실'이 4월 문을 연다. 초등 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선비교실은 다례와 고전을 활용한 토론·논술 수업으로 어린이에게 인문학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가족 동반 참여 프로그램인 '월봉서원 철학스테이'(1박 2일)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며, 이야기를 활용한 한국 철학의 뿌리를 탐구하는 '월봉서원 느낌투어'가 4월부터 10월 까지 매월 두 차례 진행된다.

참가자가 배우가 되어 마당극을 하며 전통문화와 서원을 체험하는 '월봉서원 드라마 판타지아'(9월)와 클래식과 재즈로 호남의 계산공룡을 표현하는 '살롱 드 월봉'도 열린다.

월봉서원과 고봉기대대 선생 사상의 세계화도 시도된다. 월봉서원은 오는 10월 광주에 거주하는 각국 유학생을 초청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8경 중 하나인 빙월당과 황룡강 물안개를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열고, 고봉선생과 월봉에게 인문학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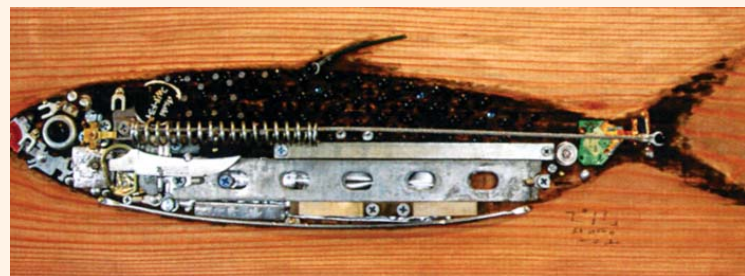
행사 참여는 월봉서원 홈페이지(www.wolbong.org)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월봉서원 또는 교육문화공동체 '결'로 하면 된다. 문의 062-432-131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전에 퍼진 '전라도 냄새'

박문중·신양호·전현숙·윤남웅씨, 6일까지 이즘 갤러리



전현숙 작 '가슴알'



신양호 작 'A FISH'

시골 오일장에서 가장 먼저 우릴 반기던 것은 소머리국밥, 흥어, 갈치, 막걸리 등이 풍겨내던 냄새다. 전라도 냄새는 아마도 사람 살아가는 공작은 모습 그 자체일 것이다.

지역작가들이 '전라도 냄새' 풍기려 대전 나들이에 나섰다. 박문중·신양호·전현숙·윤남웅씨가 오는 6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갤러리 이즘에서 '냄새'전을 연다.

흥어와 모내기 풍경을 소재로 삼은 박문중씨의 냄새는 질펀하다. 초승달처럼 생긴 무늬에 사람들이 모여 모를 심고, 함께 새참을 먹는 풍경이 정답게 묘사됐다. 또 그림 속에는 '상추는 어떻게 심어요' '발에 씨 뿌리고 물을 주면 되지요'라는 문답을 써 넣어 복잡하지 않은 자연

의 명징함을 보여준다.

신양호씨는 칼, 드라이버, 톱, 나사 등 버려진 잡동사니를 모아 비릿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갈치와 병어를 만들어냈다. 문명이 만들어낸 쇠이들이 생선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은 미적 감흥을 준다.

전현숙씨는 사람의 냄새를 선보인다.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은 탄력을 잃은 40대 중년의 몸을 과장되게 그려 직장가 가정 생활에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윤남웅씨는 시장 냄새를 풀여냈다. 자장면을 먹고, 꽃을 배달하는 시장의 삶을 화려한 색깔과 글씨를 곁들여 표현했다. 문의 070-7503-38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초슬립!!

스킬과 마미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수(D) 대산프리모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 無중금속
- 無독성
- 내구성 내마모성
-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칼라단열외벽방수공법 - 특허 제0544371호 -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